

여야, 대북화해 '지방선거 변수' 촉각

특사단 방북·북미회담 성과

국정 지지율 71%로 급등

野 "선거 영향 제한적" 경계

4월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중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신대장(定)-긴장완화) 국면이 6·13 지방선거에 최대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선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보수 진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진했던 대북정책이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집권 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고수했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특사단의 방북성과에 힘입어 전주 대비 7%포인트 급등한 71%를 기록했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도 남북 관계의 훈풍으로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49%(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로 나타났는데 북미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에 당 안팎에선 향후 지지율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애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당정 지지율 하락이 예상됐지만 남북 관계 훈풍이 이를 넘어선 셈이다.

이날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은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당에는 안 전 지사의 악재를 덮을 엄청난 호재가 된다"며 "남북정상회담보다 북미정상회담의 효과가 (여당에는) 더 호재"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에 전환점을 맞이한 한반도 정세에 '대환영' 입장을 밝히며 그간 안보 공세의 수위를 높여온 보수야당을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보수 야당들은

옛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 벌여주 기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구체적 진전에 힘을 보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제 대화의 첫 전제조건이 충족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미 양측이 서로 만나기로 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이야기했지 핵 폐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한층 강경했다. 홍 대표는 "북미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저들은 궁지에 몰릴 때 그런 식으로 '안보쇼'를 했지만, 북핵은 자기를 주장대로 하면 완성 단계를 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북미대화에 대해 대북압박과 제재의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회담 내용에 따라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학재 지방선거기획단장은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집권당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 자체보다 앞으로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3철' 한자리에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왼쪽)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에서 열린 북콘서트 '함께한 시간, 역사가 되다'에서 이호철(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오른쪽)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민병두 '미투 폭로'에 의원직 사퇴...당, 재고 요청

안희정, 검찰 자진 출석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오자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이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사업가로 알려진 한 여성은 한 매체를 통해 2008년 5월께 한 노래주점에서 민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민 의원이 블루스를 주자고 해서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응했는데 갑자기 키스를 했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가만



민병두 의원

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을 수습한 뒤 귀가하며 살펴보니 (내) 바지의 지퍼가 열려 있었다"며 "일방적이고 기습적이고 너무 기가 막혔다. 박차고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던 나 자신에게 화가 났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경우가 어찌 되었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이 이처럼 사퇴의사를 표시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재고를 요청했다.

민주당 우원석 원내대표와 서울시장위원장인 안규백 최고위원, 이춘석 사무총

장 등 핵심 당직자들은 민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이전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11일 전했다.

국회의원직 사직의 경우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로 각각 처리된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 의원이 사퇴서를 내더라도 당장 결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잠적 나흘 만에 검찰에 출석해 9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자진 출석한 안 전 지사에 대한 피의자 조

사를 진행한 뒤 10일 오전 2시 30분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지사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겠다.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때는 분개 정말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안 전 지사는 또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했던 내 참모였다. 미안하다. 그 마음의 상실감과 배신감, 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진 출석한 배경을 묻자 안 전 지사는 "(검찰의) 소환을 기다렸습니지만 견딜 수가 없게..."라며 말을 흐린 뒤 미리 준비한 흰 K5 차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가 접수된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경위, 입장 등을 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이용섭 '미생' 윤태호 작가와 북콘서트 열어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예비후보와 만화 '미생' (未生) 윤태호 작가가 함께 북콘서트를 열었다.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북콘서트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석 원내대표의 축하영상을 비롯,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개호 의원, 문성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태호 작가

또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인 노승일 씨와 로버트 할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도 깜짝 게스트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예비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떠나는 광주'를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

임호경 출판기념회...화순군수 출마 선언

임호경 전 화순군수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화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제40대 화순군수를 역임한 임호경 전 군수는 지난 10일 화순읍 하나문화스포트센터에서 화순 발전의 비전을 담은 저서 '화순시 승격은 임호경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선언을 했다.

임 전 군수는 "2002년 화순군수 당선 이후 화순시 승격을 위한 구상을 가다듬어 왔으며, 이제 화순군민과 힘을 모



임호경 전 군수

으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그 동안 전임 군수들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에서 화순시 승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부족했고, 이 때문에 다수 군민들이 임호경의 추진력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군수 출마를 결심했다"고 표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

바른미래당, 화개장터 찾아 "동서화합"

바른미래당은 지난 9일 오전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한 후 영·호남 접경 지역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찾아 동서화합을 강조하고 지역주의 극복의지를 밝혔다.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과 영남 기반의 바른미래당의 통합으로 탄생한 바른미래당은 '동서화합 정당'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창당 후 영남과 호남을 번갈아 방문해왔다.

이번 부산 방문은 전북 전주와 대구, 광주에 이은 4번째 영·호남 교차 방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에는 화개장터를 찾았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목표한 방향은 지역주의 극복과 동서화합으로 국민을 통합해야 국력을 결집할 수 있고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시대의 대의와 명분에 맞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각을 세우며 제 3정당으로서의 차별성 부각에도 부심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금 한국당은 국정농단의 적폐 세력으로 청산대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민주당은 안희정(전 충남지사) 성폭행 적폐에서 보듯, 적폐 청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적폐 청산 운운하고 자기 적폐는 감추고 숨기고 눈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대안으로서 저희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아성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과의)연대는 추호도 없고, 부울경에서 한국당이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라며 영남권에서 바른미래당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연수원/요양(병)원 변경가능
- 대572평, 건683평, 객58, 4층건물
-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 전체리모델링(5억), 관광온천지구
- 매18억(대출8억포함,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광주에서 40분
- 대지106평, 건물42평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시세 - 1억 1000만원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매매 - 8200만원
- 문의. 010-3605-5000